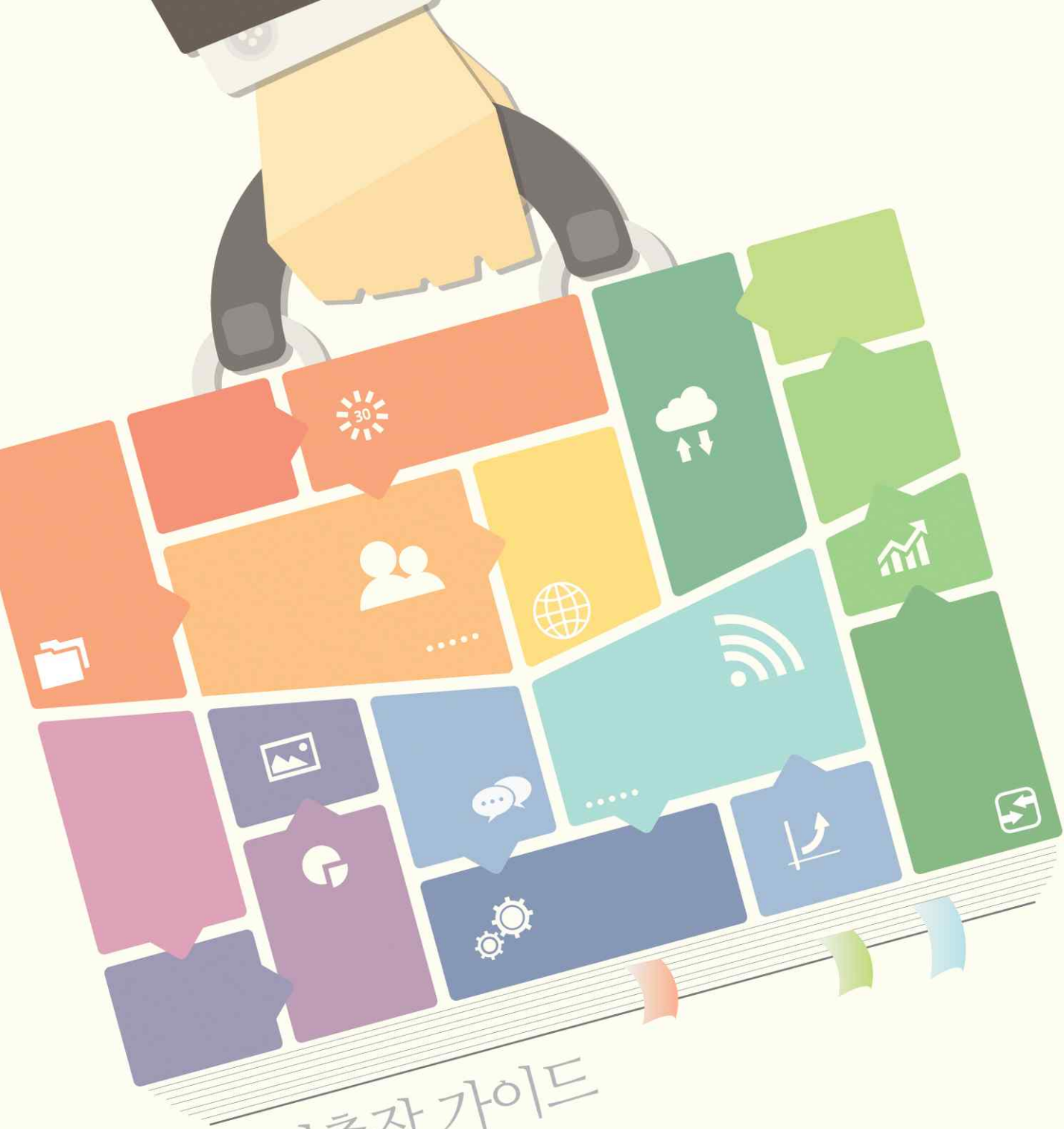




해외출장 가이드

인도 뉴델리 출장참고자료

【 목 차 】

I. 인도 개황	1
II. 인도 정치 · 경제 동향	4
III. 한-인도 무역 · 투자 동향	5
II. 인도 경제 특징	8
II. 기타 참고자료	11



I. 인도 개황

가. 국 가 개 요

국 명	인도 (Republic of India)
위 치	남아시아 (동경 68.7-97.25도, 북위 8.4-37.6도)
면 적	3,287,260km ² (한반도의 15배, 남한 면적의 33배)
기 후	열대 몬순, 온대 기후, 고산 기후 등
수 도	뉴델리 (New Delhi)
인 구	13억 1,689만명 ('18(E), IMF)
주요 도시	뉴델리(1,868만명), 뭄바이(2,153만명), 콜카타(501만명), 첸나이(981만명), 벵갈루루(1,157만명), 아메다바드(557만명)
민 족	인도-아리안계(72%), 드라비다계(25%), 몽골계 및 기타(3%)
언 어	힌두어, 영어, 주요언어 21개 등
종 교	힌두교(80.5%), 회교(13.4%), 기독교(2.3%), 시크교(1.9%), 불교(0.8%), 자이나교(0.4%)
건국(독립)일	1947. 8. 15 (영국으로부터 독립)
정부 형태	내각책임제
국가 원수 및 실권자	○ 국가 원수(대통령) : 람 나트 코빈드 (Ram Nath Kovind) ○ 취임일 '17. 7. 25 (5년 임기) ○ 총 리 : 나렌드라 모디 (Narendra Modi) ○ 취임일 : '19. 5. 30 (5년 임기, '19년 총선을 통해 재선) ○ 소속 정당 : 인도인민당 (Bharatiya Janata Party)

* 자료원: Census of India, Ministry of Home Affairs, 인도통계청, CIA, World Bank



나. 경 제 지 표

G D P	US\$ 2조 8,480억 ('18년(E), IMF)																								
경 제 성 장 률	7.35% ('18년(E), IMF)																								
1 인 당 G D P	US\$ 2,134 ('18년(E), IMF)																								
실 업 률	3.52% ('17년, CEIC)																								
소 비 자 물가상승률	4.95% ('18년(E), IMF)																								
화 폐 단 위	Rupee, Paise																								
환 율	US\$ 1= RS. 70.27 ('19년 1월 3일)																								
외 채	US\$ 5,104억 ('18년 9월, RBI)																								
외환 보유고	US\$ 3,932.87억 ('18년 12월, RBI)																								
산 업 구 조	서비스업(53.66%), 건설업(7.74%), 유틸리티(2.46%), 제조업(16.57%), 광업(2.25%), 농업(17.32%) (2016-17 회계연도, 인도 인도통계실행부)																								
교 역 규 모	<table><tr><th>구분</th><th>2015</th><th>2016</th><th>2017</th><th>2018</th></tr><tr><td>수 출</td><td>2,679</td><td>2,646</td><td>2,995</td><td>3,246</td></tr><tr><td>수 입</td><td>3,941</td><td>3,617</td><td>4,498</td><td>5,145</td></tr><tr><td>무역수지</td><td>-1,262</td><td>-971</td><td>-1,503</td><td>-1,898</td></tr></table>					구분	2015	2016	2017	2018	수 출	2,679	2,646	2,995	3,246	수 입	3,941	3,617	4,498	5,145	무역수지	-1,262	-971	-1,503	-1,898
	구분	2015	2016	2017	2018																				
	수 출	2,679	2,646	2,995	3,246																				
	수 입	3,941	3,617	4,498	5,145																				
	무역수지	-1,262	-971	-1,503	-1,898																				
자료:GTA / 단위: 억\$																									
교 역 품	o 주요 수출품 : 자동차 제품, 철강판, 합성수지, 석유제품, 합성고무, 석유화학 합성원료, 기타기계류, 기타 석유화학 제품, 무선통신기기, 금형 등																								
	o 주요 수입품 : 석유제품, 식물성물질, 합금선철 및 고철, 알루미늄, 천연섬유사, 기초유분, 정밀화학원료, 농약 및 의약품, 곡실류, 아연제품 등																								

* 주 : 인도의 회계연도는 전년도 4월부터 해당연도 3월까지 해당

* 자료원 : 인도중앙은행(RBI), 인도통계실행부(MSPI), CEIC, IMF, GTA



다. 한-인도 관계

체결협정	○ '70~'80년 : 무역협정, 문화협정, 과학기술협정 ○ '80~'90년 : 이중과세방지협정 ○ '90~'00년 : 항공협정, 관광협력협정, 투자보장협정 ○ '00~'05년 : 형사사법공조협정/범죄인인도조약, 외교관 및 관용여권사증면제협정, 한-인도 방산군수협력 양해각서 ○ '06~'09년 : 세관협력협정, 과학기술협정 ○ '10.1월 :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발효 ○ '11.7월 : 한-인도 민간원자력협력협정 ○ '11.10월 : 한-인도 원자력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 발효 ○ '11.11월 : 한-인도 사회보장협정 발효 ○ '12.3월 : 한-인도 사증절차간소화협정 ○ '15.10월 : 한-인도 항공협정																																																
교역규모 및 교역품	○ 교역규모 (단위 : 억\$) <table><tr><th>구 분</th><th>2009</th><th>2010</th><th>2011</th><th>2015</th><th>2016</th><th>2017</th><th>2018</th></tr><tr><td>수 금 액</td><td>80.1</td><td>114.4</td><td>126.5</td><td>120.2</td><td>115.9</td><td>150.5</td><td>156.1</td></tr><tr><td>출 증가율</td><td>-10.7</td><td>42.7</td><td>10.7</td><td>-5.9</td><td>-3.6</td><td>29.8</td><td>3.7</td></tr><tr><td>수 금 액</td><td>41.4</td><td>56.7</td><td>78.9</td><td>42.3</td><td>41.8</td><td>49.4</td><td>58.8</td></tr><tr><td>입 증가율</td><td>-37.1</td><td>37.0</td><td>39.1</td><td>-19.6</td><td>-1.2</td><td>18.1</td><td>19.0</td></tr><tr><td>무역수지</td><td>38.7</td><td>57.7</td><td>47.6</td><td>70.7</td><td>74.1</td><td>101.0</td><td>97.3</td></tr></table> ○ 對인도 주요 수출품목 - 철강판, 합성수지,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 석유제품, 화학원료 등 ○ 對인도 주요 수입품목 - 나프타,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합금철, 정밀화학원료, 아연괴 및 스크랩, 의약품 등	구 분	2009	2010	2011	2015	2016	2017	2018	수 금 액	80.1	114.4	126.5	120.2	115.9	150.5	156.1	출 증가율	-10.7	42.7	10.7	-5.9	-3.6	29.8	3.7	수 금 액	41.4	56.7	78.9	42.3	41.8	49.4	58.8	입 증가율	-37.1	37.0	39.1	-19.6	-1.2	18.1	19.0	무역수지	38.7	57.7	47.6	70.7	74.1	101.0	97.3
구 분	2009	2010	2011	2015	2016	2017	2018																																										
수 금 액	80.1	114.4	126.5	120.2	115.9	150.5	156.1																																										
출 증가율	-10.7	42.7	10.7	-5.9	-3.6	29.8	3.7																																										
수 금 액	41.4	56.7	78.9	42.3	41.8	49.4	58.8																																										
입 증가율	-37.1	37.0	39.1	-19.6	-1.2	18.1	19.0																																										
무역수지	38.7	57.7	47.6	70.7	74.1	101.0	97.3																																										
투자교류	○ 우리나라의 對인도 투자 (~'18년 9월까지) - (신고건수) 3,355건, (투자금액) 57.1억 달러 ○ 주요 투자 업종 (~'18년 9월까지, 투자금액 기준) - 제조업(84.58%), 도소매업(5.47%), 건설업(2.51%) 등 ○ 인도의 對한국 투자 (~'18년 9월까지, 신고기준) - 총 667건 5.7억 달러, 운송용 기계, 비즈니스 서비스업 등																																																
교민	총 교민 수 11,000여 명 (2017)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외교부, 한국수출입은행, 산업부

II. 인도 정치 · 경제 동향

가. 정치동향

- 2014년에 집권한 나렌드라 모디 정부는 신속한 정책, 책임 있는 정부를 모토로 기업환경 개선과 부정부패 척결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음.
 - * 최소정부, 최대 거버넌스를 슬로건으로 부처 통폐합, 혁신 마인드 확산
- 2016년말 부정부패 척결을 내세우며 전격적으로 실시한 고액권 화폐 통용금지 조치로 역풍을 맞이하였으나, 2018년 상반기까지 지방선거에서 연승하며 집권여당은 정국을 주도
 - * 2018년 8월 15일 독립기념일 총리연설에서 밝힌 "New India by 2022"는 현정부의 재집권 자신감을 반영
- 2019년 4-5월 개최된 인도 총선에서 단독과반, 의석수 확대 등 압승을 거두면서 2기 정부 국정동력을 확보하였음.
 - * Make in India 2.0, Digital India 2.0, 인프라 개선 등 핵심 경제정책을 보다 추진력 있게 밀어붙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됨.

나. 경제동향

- 2014년 현 정부가 집권한 이래 경제성장률은 7%대를 기록하며 인도의 경제성장은 순항 중
 - * 2014년 말부터 이어진 저유가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5%대로 안정적
- 2016년 말의 화폐통용금지 조치로 인한 통화량 부족으로 2017-18 회계연도 경제성장률은 6.7%로 주저앉았음. 그러나, 2018년 반등에 성공하며 7%대 성장이 확정적
 - * 2018-19 회계연도(RBI) : (1분기) 8.2%, (2분기) 7.1%, (연간 예상치) 7.4%
- 통합간접세(GST)를 예정대로 7월 1일 도입하는 등 경제개혁 지속. 향후 토지수용법, 난립되어있는 노동법의 통합 등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
 - * 통합간접세 : 기존 지방별로 난립되어있던 10여 가지의 간접세 항목을 GST 항목으로 통합함.

Ⅲ. 한-인도 무역 · 투자 동향

가. 한-인도 무역 동향

- (교역) 양국 무역규모는 한-인도 CEPA(2009년 체결)를 기점으로 대폭 증가하여 2011년 200억 달러 돌파 후 점차 감소하였으나 2017-2018 기간 회복세
 - 글로벌 경기회복과 함께 2017, 2018년 대인도 수출은 각각 29.8%, 3.7% 증가하였으며, 2018년에는 사상 최대치인 총 교역액 215억 달러 달성
 - * 양국 교역액 : 23억불('00) → 112억불('07) → 205억불('11) → 215억불('18)
 - 2018년 기준 한국의 7대 수출대상국으로, 총 교역액은 싱가포르와 비슷한 수준
- (무역수지) CEPA 발효 이전 5개년 평균 25.2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2017년 처음으로 100억 달러대를 기록
 - 이에, 인도는 한국의 CEPA 개정협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2018년 상반기 기준 총 29건의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 중
 - 다만, 2018년 인도의 한국수출이 크게 증가(19%)하면서, 무역불균형이 다소 개선되었음.

< 한 · 인도 연도별 무역 현황 >

(단위 : 억불, 전년 동기대비 %)

구 분		2009	2010	2011	2014	2015	2016	2017	2018
수 출	금 액	80.1	114.4	126.5	127.8	120.2	115.9	150.5	156.1
	증가율	-10.7	42.7	10.7	12.4	-5.9	-3.6	29.8	3.7
수 입	금 액	41.4	56.7	78.9	52.7	42.3	41.8	49.4	58.8
	증가율	-37.1	37.0	39.1	-14.7	-19.6	-1.2	18.1	19.0
무 역 수 지		38.7	57.7	47.6	75.1	70.7	74.1	101.0	97.3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 (주요품목) 對인도 수출품은 철강판, 합성수지, 반도체, 자동차부품 등이며 수입품은 알루미늄, 석유제품 위주

< 한 · 인도 주요 수출입 품목 >

(단위 : 억불, 전년 동기대비 %)

품 목	수 출				품 목	수 입			
	2017		2018			2017		2018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총계	150.5	29.8	156.0	3.7	총계	49.4	18.1	58.8	18.9
철강판	17.5	35.6	21.6	23.4	석유제품	10.4	6.7	12.7	21.9
합성수지	11.0	22.9	14.3	29.3	알루미늄	8.4	68.1	9.0	6.5
반도체	6.2	57.2	12.8	105.4	합금철선철	2.6	50.5	3.3	24.7
자동차부품	9.6	1.0	9.4	-1.8	정밀화학원료	2.3	12.3	2.8	18.3
석유제품	5.7	26.9	7.2	26.8	농약및의약품	1.8	14.2	2.5	37.7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MTI 3단위 기준)

나. 한국의 對인도 투자

○ (투자총괄) 2018년 9월까지 총 57.1억불을 투자

- '96~'97년 LG전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진출로 시작되었으며, '10년 전후 인도의 경제성장과 CEPA발효 이후 진출 확대
- 인도가 중국의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기아자동차가 인도내 현대기아차 제3공장을 건설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노이다 공장을 대대적으로 증설완료

< 연도별 대인도 투자 추이, 단위 : 건, 천달러 >

구분	2015	2016	2017	2018. 1-9월	누적액
신고건수	264	268	308	310	3,355
투자금액	363,771	339,930	513,570	816,323	5,712,622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주 : 누적액은 1980년 이래

○ (투자분야) 제조업이 전체 투자금액의 80% 이상 차지

< 업종별 대인도 투자 현황, 단위 : 건, 천달러 >

업종	2018.1-9월		누적액	
	신고건수	투자금액	신고건수	투자금액
제조업	158	736,809	1,914	4,831,945
건설업	27	8,342	220	143,560
도소매업	39	37,006	375	312,515
기타	86	34,166	846	424,602
총계	310	816,323	3,355	5,712,622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주 : 누적액은 1980년 이래

○ (투자기업) 전자, 자동차, 화학, 금융, 상사 등 다양한 업종의 대기업이 진출하였으며, 주요 건설업체 대부분이 진출

-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동반진출 형태가 대부분으로 독자진출은 소수

< 투자자 규모별 대인도 투자금액현황, 단위 : 개사, 건, 천달러 >

구분	신규법인	신고건수	신고액	투자액
대기업	339	1,146	6,513,556	4,969,899
중소기업	469	1,609	846,233	646,652
기타	265	600	118,696	96,071
총계	1,073	3,355	7,478,485	5,712,622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주 : 누적액은 1980년 이래

- (지역별 투자) 뉴델리(168개사) 및 첸나이(178개사)가 진출 중심지역이며, 뭄바이-푸네(100개사), 벵갈루루(38개사)에도 상당수 진출

지 역	기업수	주요 업종	주요 기업
뉴델리 등 수도권지역	168	전기·전자, 건설·중공업, 자동차·기계, 무역·물류·운송, 금융, 컨설팅, 화학, 도소매, 의료, 기타	LG전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두산중공업, 쌍용건설, POSCO 등
첸나이	178	자동차 및 부품, 건설, 전기전자, 무역·물류, 금융 기타	현대자동차, 롯데제과, 삼성전자, 롯데건설, 만도 등
뭄바이/푸네	100	제조업, 운송·물류, 도소매·유통, 건설·중공업, 기타	현대중공업, 신한은행, LG전자, 삼성물산, 현대상선, 한진해운, STAR-CJ 등
벵갈루루	38	연구개발, 제조업, 건설·공사업, 도소매·유통, 농림·수산업, 기타	삼성연구소, LG소프트, 현대로템, 두산인프라코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콜카타	4	발전소	KC코트렐 등
계	488		

* 자료원 : KOTRA 인도지역 무역관 자료종합

다. 인도의 對韓 투자

- '18년 9월까지 신고기준 총 5.7억불로 미미한 수준
 - 유통, 음식 등 소규모 투자가 대부분이었으나 마힌드라그룹, 타타자동차 등 대규모 투자도 진행
 - * 마힌드라, 쌍용차 지분 인수(4.6억불), 타타, 대우상용차 지분 인수(1.0억불)
 - 인도가 강한 IT서비스 기업 일부가 한국에 지사나 연락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규모는 미미함.
 - * Tech Mahindra(연락사무소), TCS(연락사무소), HTC Global Service(2013년 진출)

IV. 인도 경제 특징

가. 인도 경제의 강점

- (광활한 국토) 한반도의 15배, 남한의 33배인 세계 7위의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부분 평야로 이루어져 국토 활용도가 뛰어나
* 국토 면적 : 러시아, 캐나다, 미국, 중국, 브라질, 호주, 인도 순
- (세계 2위 인구) 13.1억의 인구로 세계 총 인구의 17% 가량을 차지, 무한한 내수시장 잠재력, 풍부한 저임 노동력 보유 (25년 인구 수는 중국 추월 예상)
* 중국 : 14억명 (세계 인구의 19%)
- (과학기술) 탄탄한 기초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IT, 수리/물리, 우주항공 외에도 제약 등 BT 산업 발달
- (서비스·지식) 중국이 세계 제조업의 중심이라면 인도는 글로벌 서비스·지식 기반 산업의 중심국
- (안정적 거시경제) '18.12월 기준 3,932억 달러의 외환보유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14년 이래 안정적인 물가상승률 기록
- (활발한 직접투자) 2017-18 회계연도 기간 동안 유입 FDI는 619억 달러로 사상최대를 기록
- (경제성장 본격화) 풍부한 지하자원, 광범위한 산업기반, 양질의 기술 인력, 경제개방정책을 바탕으로 중장기 경제성장의 초기 단계에 진입하였다는 평가

나. 인도시장 중점 트렌드

- 세계 제조 거점으로 부상, 친기업 정책,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 인도 정부는 제조업 진흥책, 친기업 환경조성을 적극 추진
 - * 'Make in India', 'Digital India', 州間기업환경개선 경쟁 치열(세계공장 가능성)
 - * 간접세제 개혁완료(통합간접세 도입, 7월 1일부), 노동법, 토지취득법 완화 추진

- **중산층 확산, 소매유통 혁명 진행 중**
 - 인도 중산층 3.4억명 (가구당 월 500불 이상 지출) 시장저변 확산
 - 인도 온라인쇼핑 시장 연평균 35% 성장 ('15년 40억불 → '20년 470억불 전망)
- **도시화 진행 속 인프라 개선, 인접국간 연계 인프라 발주증가**
 - 100개 스마트시티 건설, 고속도로, 철도, 전력, 수처리 등
 - 벵골만 연안국(인도, 방글라데시, 미얀마, 태국, 네팔 등)간 고속도로 연결, 항만, 전력거래, 국경무역 촉진 등
- **경제활동인구 증가, 탄탄한 내수시장 등 경제성장 지속**
 - 세계경제 침체 속에도 서남아 지역은 상대적으로 고도성장 시현
 - * 인도와 방글라데시는 2020년까지 연 6.8~7.9% 고도성장 지속 전망

다. 인도 경제 리스크

- **(지정학적 리스크) 중국, 파키스탄 국경접경 지역의 소요사태 빈번, 파키스탄과는 양국간 4차례 전쟁으로 역내 경제협력체제 확립 애로**
 - 2017년 3월 이래 반년 동안 지속된 동북부 도크람 지역에서의 중국과의 대치상황, 서북부 잠무&카슈미르 파키스탄 접경지역 소규모 충돌 등
- **(열악한 정주여건 및 비즈니스 환경) 인도 등 서남아 정주여건 및 기업환경은 여전히 열악**
 - 140개 도시 생활여건 중 방글라데시 다카 등과 함께 하위권
 - * EIU 생활여건 조사('15): 다카 139위, 카라치 134위, 콜롬보 128위, 뉴델리 110위
 - 기업환경은 급속히 개선되고 있으나 불투명한 행정처리와 제도로 인해 진출기업의 불편함은 여전
 - *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Easy Doing Business) : (2018) 100위 → (2019) 77위
 - * 무역협회 설문조사(2015), “타 개도국 대비 인도수출시 어려움” : 매우많다(16.8%), 더 많다(43.5%), 비슷하다(35.6%)
- **(열악한 인프라) 전력부족에 따른 수시 정전, 낮은 공업용수 품질, 도로미비, 공항·항만 부족 등 인프라 미흡**

- (부정부패) 인도는 '17년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에서 180개국중 81위에 그치는 등 부패가 심하고 행정절차가 불투명
 - BRICs국가 국가청렴도 지수 : 중국(77위), 브라질(96위), 러시아(135위)
- (빈곤층) 전체 인구의 약 20%가 기아선(Poverty Line) 이하의 극빈층이며, 이들이 도시에 유입되면서 각종 사회문제 발생
- (사회갈등) 카스트 제도가 헌법으로 폐지되었으나 실생활에 여전히 잔존, 힌두-무슬림간 종교적 갈등은 언제든지 촉발 가능
- (우발적 사태) '08년 뭄바이, '11년 델리 고등법원, '13.10월 인도 북동부 인도국민당(BJP) 유세장 사건 등 각종 테러사건 잇따라 발생

라. 인도시장의 잠재력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인도인

- 미국 과학자의 12%, NASA 과학자 36%가 인도인
- 과학자/엔지니어 조달 용이성 세계 1위 (세계 경쟁력 보고서)
- 글로벌 IT기업 직원 중 다수가 인도인 : MS(34%), IBM(28%), Intel(17%), Xerox(13%)
- 미국 의사의 38%, 영국의사의 1/3이상이 인도인
- Hotmail 창시자(Sabeer Bhatia), Sun Microsystem 공동 설립자(Vinod Khosla), 펜티엄 칩 설계자(Vinod Dham)

- (휴대폰) 2017년 9월 기준 무선전화 가입자 수는 10.5억명에 이르며, 2017년 스마트폰 출하량이 1.24억대를 돌파하였음.
 - 인도 중산층 소비확대, 지방 등 미개척 지역 고객 잠재력, 4G 서비스 상용화 등
- (자동차) 글로벌 완성차 메이커들의 對인도 투자 확대 계획 발표
 - 인도 + 중동 및 서남아시아 수출을 위한 제조 허브 구축. 2016년 한국을 제치고 세계 5위 승용차 생산국에 등극
- (유통) 인도 소매유통 시장규모는 세계 5위 규모이며, 2020년까지 1조 달러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BCG, 2015). 특히, 전자상거래 시장이 폭발적으로 확장하면서 Amazon, 소프트뱅크, Walmart 등이 대규모 투자집행



IV. 기타 참고자료

1. 기후 및 복장 정보

□ 인도 기후 및 복장 정보

- 인도 대부분의 지역이 아열대 기후이나 뉴델리를 포함한 북부 지역의 경우 여름, 겨울 간 기온 차가 심해 겨울에 북부 지방 여행을 계획하는 경우 두툼한 옷 준비가 필수적이며, 그 외 계절의 경우도 태양빛이 강렬하므로 반팔 외에 긴 팔 의복을 준비하는 것이 좋음
- 일반적으로 4월부터 10월까지는 우리의 한여름 이상으로 기온이 올라가 5~7월은 최대 50°C(평균 35~45°C)까지 올라가며, 동절기(12월말부터 2월까지) 기간에는 기온이 새벽시간 최저 기온 0~3°C 이하로 내려감
- 행사기간에는 아침, 저녁은 조금 쌀쌀한 편이나 낮에는 덥게 느껴짐. 복장으로 봄·가을 옷을 준비할 것을 권장

2. 기타 주의사항

□ 치안

- 인도의 치안 여건은 여타 개도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지만 외국인 여행자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범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됨
- 정치 군사적으로 민감한 카슈미르, 북동부 2~3개주, 안다만 제도 등을 여행하기 위해서는 별도 허가가 요구되며 이들 지역은 테러에 의한 집단 사망 사고가 종종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 교통

- 보행 중 지나가는 택시처럼 잡아타는 도구로는 오토릭샤로 오토바이 엔진에 뒤의 승객 칸(통상 2~3인 자리)을 붙인 3륜 형태가 대부분
- 일반 시내버스의 경우 요금이 저렴하지만 연결 노선이 불편하고 언어 소통, 추행 등 문제가 있어 힌디어 구사가 어느 정도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 위생

- 여행 또는 출장으로 인도에 온 사람들이 가장 걸리기 쉬운 질병은 자칫 현지 음식으로 인한 배탈을 앓게 되며, 물은 미네랄워터 생수병을 사서 마시는 것을 권고. 특히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은 먹지 않는 것이 좋으며, 무역관 직원 또는 현지 교민에게 안전하다고 인증된 식당에서 식사를 할 것을 권유
- 식당이나 심지어 호텔에서조차 생수가 새것인지 잘 확인해보고, 양치할 때에도 생수를 이용하는 것이 좋음

□ 인근 종합병원

병원명	주소	전화
Apollo Hospital	Sarita Vihar, Delhi Mathura Road, New Delhi - 110076	+91-11-2692 5858 / 5801
AIIMS Centre	Ansari Nagar, New Delhi - 110029	+91-11-2658-8500 / 8700
Max Hospital	2, Press Enclave Road, Saket New Delhi, Delhi 110017	+91-11-2651-5050
긴급전화 (경찰) 100 (화재신고) 101 (앰블런스) 102 (전화번호 안내) 197 (관광청 긴급 헬프 라인) +91-11-2336-5358		

3. 주요 관광지

□ 뉴델리 지역

○ India Gate(인디아 게이트)



- Rajpath(라즈파트, 왕의 길이라는 뜻으로 파리의 샹제리제와 같이 넓은 중앙도로) 동쪽 끝에 있는 높이 42m의 승리의 아치. 제1차 세계대전에 영국군으로 참전하여 전사한 9만여 인도 병사들과 같은 시기에 일어난 북서부 전선작전, 1919년 아프가니스탄과의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9만여 명의 인도 병사들을 위한 위령탑으로, 벽에는 1만 여 명의 전몰 장병의 이름이 소속별로 새겨져 있음

- Rajpath를 사이에 둔 서쪽의 끝에는 영국 건축가 루텐스경에 의해 설계되어 1929년에 완공된 Rashtrapati Bhavan(라스트라빠띠 바완, 대통령궁)이 위치하고 있음. 대통령 궁에서 볼 때 오른쪽(South Block)에는 외교부와 국방부가, 왼쪽(North Block)에는 재무부와 내무부가 있으며, 내무부 뒤의 콜로세움을 닮은 건물은 의회 건물

- 이곳에서 약 1Km 떨어진 곳에는 뉴델리와 올드델리 접점이자 델리의 중앙인 Connaught Place(코넛 플레이스)가 위치. 영국왕 조지5세의 형제인 코너트공(Duke of Connaught)의 인도방문을 기념하여 영국이 세운 Plaza로, 잘 구획된 도로와 각종 관공서, 상가 등이 밀집해 있음

○ National Museum(국립박물관)

- 인도 역사를 소개하는 유물들을 다수 소장. 인도 역사의 기원인 인더스 문명에서부터 마우리아, 굽타, 간다라 문명 등 인도의 중세와 현대에 이르는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음. (10:00~17:00, 월요일 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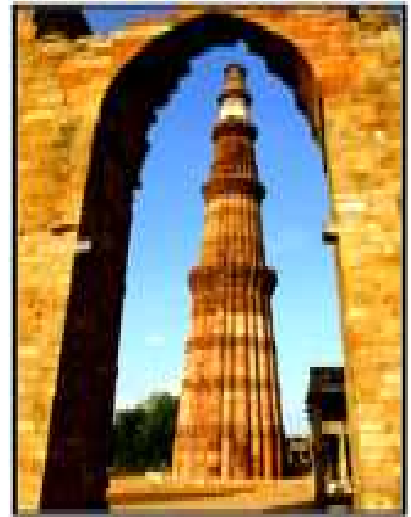
○ National Gallery of Modern Art(국립현대미술관)



- 2009년 1월 19일 정식으로 개관하여 인도 현대미술 최고의 작품들을 다양한 전시와 주제를 통해 소개하고 있음. 출판국이 따로 있어 지금까지 300권이 넘는 작품을 발간하였으며 우리나라 이세득 작가의 작품도 소장되어 있음

○ Qutab Minar(꾸똥 미나르)

- 꾸똥 미나르는 높이가 거의 73m에 이르며 1192-1368 년간에 건립한 거대한 탑으로, 밑부분 지름은 15m나 되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가늘어져 꼭대기의 지름은 2.5m에 지나지 않음. 이 탑은 서로 분명하게 구분되는 다섯층으로 이루어져 있음. 오늘날 이 탑은 수직선에서 60cm쯤 기울어져 있으며 예전에는 탑 속으로 올라가 발코니에서 주위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었지만, 1981년 단체 관람 학생들의 무질서한 행동으로 많은 학생들이 희생을 당한 후에 폐쇄



- 한편 Iron Pillar(철기둥)는 와툽 이슬람 마스지드 마당에 박혀 있는 높이 7.2m의 쇠기둥. 쇠기둥에 새겨진 6줄의 산스크리트 문자에 의하면 이 쇠기둥은 원래 비하르에 있는 비슈누(Vishnu)사원 마당에 굽타 왕조의 찬드라굽타(Chandragupta) 2세를 기념하여 세워진 것으로 추정됨. 4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임에도 순도가 100%에 가까운 이 쇠기둥은 고대 주조기술의 신비로움을 보여줌(일출에서 일몰까지)

○ Humayun's Tomb(후마윤 무덤)



- 붉은 사암과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묘단의 벽에는 아치형의 작은 입구들이 많은데, 입구는 무굴제국의 왕실 가족들의 무덤이 안치되어 있는 방들로 통해 있음. 본 묘는 회고 검은 대리석으로 정교하게 상감한 붉은 사암으로 지어지고 중앙의 팔각 석실에는 후마윤 묘석이 들어 있음
- 지붕 위에 있는 거대한 대리석 돔은 완전한 반구형으로, 페르시아 지역에서는 이미 13세기부터 쓰이던 양식이었지만 인도에서는 아주 초기의 것임. 지붕 위 중앙돔의 양편에 있는 캐트리스들은 돔의 곡선과 나머지 구조물의 각을 융화하고 있음(일출에서 일몰까지)

□ 아그라 지역 (델리에서 편도 4시간 소요)

○ Taj Mahal(타즈 마할)



- 아그라 신시가지 동쪽 넓은 야무나 강변에 자리하고 있는 타즈 마할은 너무나도 유명한 세계적인 문화유산. 1631년 무굴제국의 왕 샤 자한이 부인을 위해 짓기 시작하여 22년 만인 1653년에 완공
- 가로 300m, 세로 530m의 당당한 정문은 붉은 사암으로 만들어졌고, 정문의 아치를 빠져나가면 넓은 마당에 수로 (水路)를 둔 전형적인 무굴 양식의 정원과 분수가 펼쳐짐

샤 자한은 17년동안 14명의 아이를 낳고, 15번째 아이를 낳다가 1629년 사망한 부인 뭄타즈 마할(Mumtaz Mahal)을 추모하여 이 아름다운 묘를 만들. 이란 출신의 우스타드 이샤(Ustad Isa)에 의해 설계가 완성되었고 터키, 이탈리아, 프랑스 등지에서 훌륭한 장인들 2만여 명이 차출되어 왔으며, 건축자재의 운반을 위해 천여 마리의 코끼리가 사용되었다고 함 (일출에서 일몰까지, 금요일 휴장)

○ Agra Fort(아그라 성)

- 야무나 강변에 위치한 아그라 성은 1565년 악바르 황제가 건설하기 시작하였고, 그의 손자인 샤 자한에 의해 부분적인 추가 공사가 완성 됨. 악바르 시대 때, 이 성은 단순한 군사 요새였으나 손자 샤 자한은 내부에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추가로 만들어 자신의 궁으로 사용
- 성벽은 2.5km 길이로 성을 감싸고 있으며, 그 밖은 10m 넓이의 해자로 둘러싸여 있음(일출에서 일몰까지)



○ Pathepur Sikri(승리의 도시)



- 무굴 제국의 황제 악바르에 의해 만들어진 도시인 파테푸르 시크리는 아그라에서 자이뿌르 방향으로 37 Km 떨어진 곳으로, 1573년의 구자라트 전쟁 승리를 기념해서 이름 붙인 도시
- 이 도시는 악바르대제가 성자(세이크 살림 치스티)의 예언대로 아들을 얻은 기쁨으로 성자가 사는 지역인 이곳에 대규모 성을 건설, 16년 동안 무굴제국의 수도로 삼았으나,

그 후 Lahore를 거쳐 Agra를 수도로 정한 후에는 무굴제국 당시에 도 용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수도 및 도시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 채 황폐화되어, 일명 유령의 도시로 불리게 됨 (일출에서 일몰까지)



www.kotra.or.kr